

靑 수석에서 당 대표로…새누리 영남 철옹성 됐다

의미와 과제

이정현 의원의 9일 새누리당 대표 당선은 국내 보수정치의 새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영남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온 보수정당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호남 출신으로 30년 이상 당내 비주류로 꽃피어 버틴 끝에 제1당이자 여당의 대표가 됨으로써 호남의 보수세력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승리 요인=애초 이 의원이 경선에 도전했을 때 당 안팎에서는 ‘불가능’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비록 친박계가 당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영남 출신이 아닌 당 대표를 상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선거캠프를 차리지 않고 점퍼 차림으로 배낭투어를 하며 당원과 국민을 접촉하는 등 상식을 갠 선거운동으로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차지하자 설마 하던 분위기는 희망으로 바뀌었고 결국 친박계의 전폭적 지원까지 받게 됐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도 현장 대의원의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향후 정책=이 의원의 대표 당선은 당 내외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다. 우선

친박계 지지 압도적 승리

반기문 대권가도 파란불

당청 수평관계 정립 과제

계파갈등·대야관계 악화

당 밖으로는 여당이 박 대통령 임장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면 야당과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당내로는 친박·비박계간 긴장 관계가 고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경우 당내 일부 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단 당내 갈등은 잠복해 있다가 대선을 앞두고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방식 논의과정에서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여권 대선후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당선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보고 있다.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는 데다 총선 패배 책임론에 묶인 친박계로서는 대선 1년6개월을 남기고 외부 영입 외에는 후보를 내세우기 어

려운 상태다. 이미 여권에서는 충청 출신인 반 총장에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이 결합하는 정권재창출 시나리오가 파다하다. 여기에 호남 출신인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됨으로써 외연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 비박계 대선후보로 꼽히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대권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지 않아도 계파 조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완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까지 빼앗겼으니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불리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과제=이 신임 대표는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계파갈등 해소를 비롯해 당청 협력관계 복원,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대야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수두룩 안게 됐다. 특히 내년 대선 정권재창출 토대 마련을 위해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관 중책을 맡게 됐다.

지난 4.13 총선 공천과정에서 최고조로 촉발된 친박계와 비박계 간 계파갈등을 해소하고 당 화합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에 당장 직면하게 됐다. 또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박근혜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긴밀한 당청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대야관계도 20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신임 최고위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년 최고위원 유창수, 최고위원 최연철, 이 대표, 최고위원 조원진, 강석호, 이상우. /연합뉴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박근혜의 입’ 순천서 연속 당선 지역주의 허물어

이정현은 누구

8·9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가 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휴대폰 배경음은 가수 인순이의 ‘거위의 꿈’이란 노래다.

이 대표는 벌써 7년이나 이 노래를 사용하지만 바꾸지 않고 있다. 이 노래 가사가 자신의 정치인생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이 노래를 언급하며 “새누리당에서 호남인으로 33년간 꿈을 키워왔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비웃음을 참아왔다”고 말하곤 했다. 또 “새누리당 안에서 소외된 호남 출신에 학벌도 돈도 뺏고 외모도 없는 ‘비주류의 비주류’였다. 새누리당 말단 간사부터 시작해서 차장, 부장, 국장, 부대변인, 공보단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최고위원까지 올라온 ‘저라도 촌놈’이 집권당, 그것도 기득권집단 이미지가 강한 당의 대표까지 올라서면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 혁명이라고 호소했다. 결국, 이 의원은 이 노래처럼 대표가 되면서 비주류의 꿈을 실현시켰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 1984년 동국대 졸업 후 구용상 당시 민주정의당 의원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공채로 민주자유당 당직자가 됐으며 신

한국당, 한나라당을 거치며 최장수 호남 출신 당직자로 활동했다.

이 신임 대표의 박 대통령과 인연은 지난 2004년 총선에 떨어지고 당에 “새누리당이 호남 포기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고 건의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표가 수석부대변인으로 기용하면서부터다. 이후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을 지내며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박 대통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나 19대 총선에서는 광주에서 출마, 당시 야권 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환 후보에게 패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 정부수석·홍보수석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순천·곡성 재보궐선거에 출마, 당선되는 기적을 이뤘다. 호남에서만 4번째 출마한 끝에 첫 당선이었다. 18년 만에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만든 것이다.

이어 올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되며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최초로 호남지역에서 보수정당의 지역구 재선 의원이 됐다. 그리고 9일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새역사를 쓰면서 비주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금부터 새누리에 친박·비박은 없다” 대표 수락 연설

이정현 신임 대표는 9일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자 계파 청산을 도다시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 연설을 통해 “지금 이순간부터 새누리당에 친박, 비박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당연히 패배주의도 지역주의도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혹여 경선 과정에서 저의 언행으로 마음이 상했다면 사과한다”며 “우리 모두 지난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함께하고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영어로 “Do Together(함께 하고), Go Together(함께 가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생부터 챙기겠다”며 “민생만큼은 야당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여당의 책임으로 정책과 예산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가치를 지키는 새누리당을 만들어가겠다”며 “또 새누리당의 구조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꿔 국민의 삶 속으로 뛰어들겠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찾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 힘으로, 대한민국 당원의 힘으로 새누리당을 바꾸겠다”며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정치개혁을 경험할 것이다. 남은 정치를 우리가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한국정치 중심에 서다

여야 1·2·3당 대표 모두 호남 출신…대선후보 못 내 한계 지적도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호남 출신의 이정현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원내 1, 2, 3당의 당 대표가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호남 정치의 만개(滿開)’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신임 대표는 곡성이 고향으로 순천중앙중학교와 광주 사제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동국대를 졸업한 이후에도 광주와 전남을 무대로 보수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해온 온전한(?) 호남 정치인이다. 30년 이상을 당내 비주류로 활동해오면서도 굴하지 않고 정치적 꿈을 키운 끝에 9일 활짝 꽃을 피웠다.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할아버지가 전북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6·25 전쟁 중에 호남으로 피난을 가서 광주 서석초등학교와 서중학교에 다녔다. 본인도 비대위원장이 된 후 이 부분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진도 출신으로 목포를 지역구로 둔 정치인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신임을 바탕으로 호남 민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호남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을 선택, 총선 호남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여야 주요 정당의 대표가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지자 호남의 정치력이 커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 정당의 당 대표 모두가 호남 출신인 적은 국내 정치사상 유일하기 때문이다.

벌써 호남 관가에서는 호남의 현안과 예산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또 내년 대선에서 호남의 정치적 비중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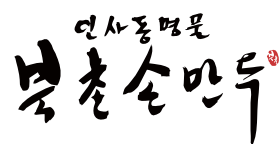
하지만, 이처럼 모든 주요 정당 대표가 호남 출신이라는 모습이 결보기에는 좀 아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호남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호남 출신은 아직까지 전무하기 때문이다. 정작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에 도전하는 유력한 후보 한 명 내지 몇 안되면서 정당의 대표만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푸념 섞인 한숨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대표 역시 선출직이 아닌 ‘임시’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점에서 그 힘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지적이 있고 임기도 한시적이다.

반면, 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의 경우 김무성·유승민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모두 영남 출신이다. 또 야당도 문재인·안철수·김부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한 대선후보는 모두 영남 출신이다. 그럼에도, 호남 출신 대표들이 ‘영남관’으로 구성되가는 대선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참가업체 일부 소개 !!



..... 더욱 많은 창업아이템은 현장에서 확인!

2016 광주·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김대중컨벤션센터 8.19(금)~21(일)
Kimdajeung Convention Center

- ★ 참관 POINT 3가지! ★
- 1. 2016 창업트렌드 파악
- 2. 1:1 무료가맹상담
- 3. 무료 창업 교육 강연

주최 KFA 社團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광주·전남지회 主幹 제일중은전람
후원 한국지역산업연구원 www.yesexpo.co.kr 문의 02)856-1402